

8/13/17

설교 제목: 아가서 2 장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아가서 2:1-14

- (아 2:1) 나는 사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절관주** 사 35:1
- (아 2:2)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 (아 2:3)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수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 (아 2:4)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칫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 (아 2:5)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하므로 병이 생겼음이라
- (아 2:6)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절관주** 아 8:3
- (아 2:7)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 (아 2:8)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 (아 2:9)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절관주** 아 2:17
- (아 2:10)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 (아 2:11)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 (아 2:12)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 (아 2:13)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 (아 2:14)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 (아 2:1) 나는 사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아 2:2)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1 장에서 솔람미 여인인 신부는 신랑을 가르켜 몰약 향주머니요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라고 칭송합니다.

그리고 2 장에 들어 와서 그런 신랑에 비해 자신은 팔레스타인 지역 넓고 넓은 들판에 피는 흔하고 흔한 들꽃 수선화에 불과하다고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골짜기의 백합화' 역시 자신의 낮은 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신랑은 신부의 말을 받아 신부를 가리켜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고 합니다.

가시 나무는 자기 자신이 지니고 있는 가시로 인해 왕과 온전한 교제를 가지지 못하는 예루살렘 여인들을 가리킵니다.

가시 나무는 곁에 있는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솔람미 여인 역시 이들 곁에 있으면서 끊임없이 비교 당하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렇지라도 왕의 눈에 솔람미 여인인 신부는 그러한 예루살렘 여인들과는 다른 백합화로 보입니다.

피부도 검고 보잘 것 없는 솔람미 여인일지라도 왕인 신랑의 눈엔 백합화 같이 귀하고 사랑스럽게 보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랑에 눈이 먼 겁니다.

허물 많고 죄 많아 보잘 것 없는 우리지만 하나님 눈에는 왕의 눈에 솔람미 여인인 신부가 백합화 같이 귀하고 사랑스럽게 보이듯이 그렇게 귀하게 사랑스럽게 보이는 것입니다.

(아 2:3)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수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신부는 신랑을 수풀 가운데 사과 나무 같다고 합니다.

다른 남자들은 수풀이고 신랑은 수풀 가운데 우뚝 서 있는 사과 나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랑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이 생각납니다.

신부는 신랑의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다고 말합니다.

나무 그늘 아래에서는 뜨거운 햇볕을 피하고 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무 그늘에 앉는다는 것은 거기에서 뜨거운 햇볕을 피하고 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가 세상의 환난을 피하여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사과 나무 그늘 같습니다.

(마 11:28)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 14:27)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신부는 또 그 사과 열매가 입에 달다고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으로 우리가 얻게 된 열매인 속죄, 칭의, 새생명은 사과같이 성도들에게 큰 기쁨과 유익을 줍니다.

(아 2:4)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신부는 신랑이 자기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가게 했다고 말합니다.

잔치집은 사랑의 교제 안에서 맛 볼 수 있는 즐거움과 행복이 있는 곳입니다.

말씀과 교제가 풍성한 교회입니다.

신부는 드디어 신랑에게 사랑받는 자로서의 자신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신부는 신랑의 사랑이 내 위에 깃발이라고 합니다.

왕인 신랑의 사랑받는 자로서의 드높아진 자신의 위상을 말합니다.

신랑의 사랑을 받음으로써 자신이 승리자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아 2:5)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하므로 병이 생겼음이라

해석하기 난해한 구절입니다.

신부 솔람미 여인은 사랑에 취해 정신을 못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정신을 차리고 이성을 회복하고자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그들이 먹고 힘을 내는 건포도와 사과로 자신을 도와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건포도와 사과는 세상의 것들로 단지 외적인 필요를 채워 줄 뿐입니다.

(아 2:6)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그녀가 사랑에 취해 정신을 못차릴 때에 신랑이 다가와서 안아 줍니다.

그녀가 다시 세상에서 정신을 차리려 몸부림치고 애를 쓸 적에 신랑이 기댈 수 있는 의지처가 되어 줍니다.

신랑이 신부를 세상적인 쾌락이나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도록 끝까지 보호해 주고 지켜주고 있음을 나타내 보여 줍니다.

(아 2:7)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신랑의 사랑으로 인해 신부는 다시금 신랑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신랑은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다시는 신부로 하여금 그들 자신들이 의지하고 있는 세상적인 것들을 의지하도록 유혹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아 2:8)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신부는 이제 신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민감한 영적인 귀를 가지게 됩니다.

신부 솔람미 여인은 1장에서 신랑을 찾기 위해 신랑이 양을 치는 곳과 정오에 쉬는 곳을 알려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도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 놓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분의 임재, 그분의 다가옴,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 2:9)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그러나 이러한 신랑과의 연합은 지속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임재도 지속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기도 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이고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자기 눈 앞에 나와 있는 사슴이나 노루처럼 슬며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감지됩니다.

신랑은 그녀에게 시선을 옮긴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조심스럽게 그녀를 돌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지만 우리는 그 분을 항상 느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창문 곁에 서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가 방문을 열고 영접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 2:10)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 2:11)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신랑은 신부가 거하고 있는 은밀한 곳에 와서 신부를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분이 거하는 곳, 그 분이 인도 하는 곳으로 가자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우리 안에 안주하지 말고 당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아브라함의 부르심처럼 그분의 온전한 소유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거처를 떠나라고 하십니다.

이제 신랑은 또 다른 영적 경험의 세계로 신부를 인도합니다.

겨울이 지나갔다는 것은 이제 세상적인 욕망과 기대가 사라짐을 이야기 합니다.

세상으로 인해 받는 유혹과 시험이 사라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피해 주님께로 온 자,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내면에 거하는 자에게 주님은 또 다시 함께 세상으로 나가자고 합니다.

애굽에서 나와 광야로 들어온 자에게 다시 가나안을 향해 길을 가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 2:12)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아 2:13)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세상의 즐거움을 버리고 주님과 함께 다시 나온 세상은 이전과는 아주 다릅니다.

지면에는 꽃들이 피어 있고 열매가 열려 있으며 비둘기 소리가 들립니다.

성령의 열매와 신앙의 열매들이 주렁 주렁 달려 있습니다.

구원에 머물지 않고 비전을 위해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기위해 나아가자는 의미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의 첫 사랑을 경험한 우리는 이제 첫 은혜 받았을 때의 아름다운 추억에서 빠져 나와 그 분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 2:14)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바위 틈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 안을 말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는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비둘기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숨어있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그 분의 십자가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제 신랑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십자가 안에 감추어져 있는 우리를 불러 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분과 함께 다시 세상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처음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을 때의 그 사랑과 감격에 갖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기쁨이 너무 커서 더 이상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숙한 신앙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자리에서 나와서 열매 맺는 삶,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랑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부된 우리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선택되어 사랑받고 있는 신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향해 계속 당신과의 달콤했던 첫 경험에 빠져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당신과 함께 세상에 나와 열매 맺는 삶,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에 응하여 열매 맺는 삶,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